



자유의 기치

모로나이 대장은 훌륭한 지도자였어요. 모로나이 대장은 하나님을 따랐으며, 니파이인들이 가족을 보호하도록 도왔어요.

모로나이는 자기 겹옷을 찢어 깃발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그 위에 자유와 종교와 평화를 기억하게 해 줄 문장을 썼어요. 모로나이는 사람들에게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권했어요. 모로나이는 모든 망대에 깃발을 내걸었어요.

사람들은 그 깃발을 자유의 기치라고 불렀어요. 자유의 기치는 니파이인에게 옳은 것을 수호하도록 영감을 주었어요. (앨마서 46:11~20 참조) ●

앨마가 용서를 간구했을 때 그의 영혼은 무엇으로 충만해졌나요? (앨마서 36:20)

모로나이 대장은 백성에게 “그들의 머리를 보호”하기 위해 무엇을 주었나요? (앨마서 43:19)

모로나이 대장이 편지를 보낸 최고 통치자는 누구였나요? (앨마서 61:1)

나는 물몬경을 읽을 수 있어요!

물몬경을 읽은 다음에는 그림의 일부를 색칠해 보세요. 『와서 나를 따르라』 주별 읽기 과제와 함께 다음 성구들을 읽어 볼 수 있어요.

첫째 주: 앨마서 37:37

둘째 주: 앨마서 40:23~25

셋째 주: 앨마서 43:45

넷째 주: 앨마서 62:50~51



종이나 포스터를 사용해 자기만의 자유의 기치를 만들어 보세요.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는 단어나 그림을 그려요. 여러분이 만든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 주세요!